**2014.7.20 꼬빌리시교회 연합예배 설교문 (한글) / 설교자: 김창근 목사 (서울 무학교회)**

**His winning strategy**

**하나님의 승리 전략**

**Joshua 5:1-15**

**여호수아 5장 1-15절**

The Korean church has produced numerous martyrs. Spirituality of martyrdom flows to this day.

한국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이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One theologian described the conditions to become a martyr as murder, faith, and deep influence.

한 신학자는 순교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죽음, 믿음, 깊은 영향력의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But, I think that the answer would be different if you ask the martyrs.

하지만, 순교자 본인에게 물으면 아마 그 답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Murder and faith would be the same, but the last condition would be happiness from the deep love toward the Lord.

죽음과 믿음에 대해서는 동일하겠지만, 마지막 조건에 대해서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라고 그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The martyrs, even though their suffering of martyrdom, would have been filled with joy of having carried the cross of God.

순교자들은 그들이 겪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을 것입니다.

Christians should always be filled with Jesus Christ, and the resulting emotion and joy.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언제나 충만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At that time, we will become believers with the ability to win against the world.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진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The Israelites could cross the Jordan River by the miracle of God.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They had finally taken their first step in the land of Canaan, the land promised by God.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Then, they had to conquer Jericho, the first war for the conquest of Canaan.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전투를 통해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After saving Israel from Egypt, God made them live in the wilderness of the desert for 40 years.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They were able to mature as the chosen people through training to live by the law and by faith.

거기서 율법과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There was renewed leadership through Joshua.

여호수아는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A young commander, and the soldiers were replenished with courage.

그 젊은 사령관과 그의 병사들은 용기로 충일해 있었습니다.

However, this war would not be an easy one.

하지만 이 전쟁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Armed with powerful weapons, the Canaanites were veterans who were familiar with the idea of war.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Also, there was the impregnable Jericho.

또한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What do you need to conquer these people?

이 백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You cannot wish the conquest true. We must fight the scary war.

그 정복이 실현될 것을 바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전투에서 뭔가 기가막힌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There are wars that the Church and we Christians must fight through in order to advance towards the future.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Do you want to leave a beautiful future to the next generation we love so much?

여러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If so, we must win the spiritual warfare without fail.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적전투를 실패없이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What is the strategy that will lead us to victory in this war?

그렇다면 이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전략은 무엇일까요?

**1. To be the Holy Peopl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The Canaanites were assailed by great fear when the Israelites crossed over the Jordan by the miracle of God.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That the Israelites had crossed over the Jordan became a big fear to the Canaanites, and as a result, the Canaanites almost lost all of their spirit and will to fight.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이 가나안인들에게 큰 두려움을 끼쳤고, 그 결과 가나안인들은 싸움을 위한 정신력과 의욕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Their hearts melted like water, and they no longer had the courage to face the Israelites.

그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버렸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상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If there had to be war, this would be the time.

이스라엘이 만약 싸워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일 것입니다.

The Canaanites thought they could not win the war because the Israelites were with God.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기에 가나안인들은 자신들이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They had heard a rumor that the Israelites had also crossed over the Red Sea and here they were, having crossed the flooding Jordan River. They thought, ‘We’re done.’

그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고 이제 요단강도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도 끝이다” 생각했습니다.

Timing is important in war. We can always win if we attack when the enemies’ morale is at its lowest.

전쟁에서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적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But,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do something that was hard to understand, to circumcise the children of the Israelites in front of the enemy.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도록 시키십니다. 적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If the circumcision were performed, the Israelites would lose the ability to win the war.

만약 그 할례가 실행된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It would mean losing the ability to act for at least a week.

그것은 적어도 한 주 동안은 행동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What is the reason for carrying out the circumcision while they face a dreadful war and the Canaanites?

부담스러운 전투를 앞에 두고 가나안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It is because victory of the war is to God, and not to the people.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The Israelites, the military of God, will necessarily win the war when they are with God.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Without God, there is only defeat.

하나님 없이는 패배만이 있을 뿐입니다.

Obtaining victory in the world’s battles depends on strategy and tactics, military and weapons, training, and courage.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은 전략과 전술, 군대와 무기, 훈련과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However, the outcome of a spiritual battle depends solely on God.

하지만 영적전투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You will win if God is with you.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것입니다.

The condition of being with God is being “holy”.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한 조건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In the past, priests going towards God had to wear head bands which had the prescription, “holiness and purity,” inscribed.

과거에 성직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과 순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머리끈을 매어야 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priest is to always live in holiness to God.

성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Before the war, the Israelites needed to portray a self-image of being the distinguished, holy people of God.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That is why God commanded the circumcision.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였습니다.

God is always with the holy people.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사람과 함께하십니다.

A person who has confidence in God’s presence “with him” and moves forward will surely be victorious and achieve his goals.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이 그분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 승리할 것이며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God commanded circumcision at *Gilgal* and said, “Today, I have rolled away the reproach of Egypt from you.”

하나님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명령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었다.”

The place called *Gilgal* has the meaning, “roll away”.

‘길갈’이라는 그 지명이 의미하는 바가 “굴려내다”입니다.

Although God freed the Israelites from slavery, hundreds of years of servility had been soaked in their bodie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상태에서 자유케 하셨지만, 수백년간 그들의 몸에는 노예근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Servility makes people live in frustration, inferiority, resentment, and with no dreams.

그 노예근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과 열등감과 분노 가운데 살게 하였고 꿈을 앗아갔습니다.

Through circumcision, God helped them confirm that, during the 40 years of living in wilderness, they had shed old habits of slavery.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40년 광야생활 동안 그들의 그 옛 노예근성이 제거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Trained by the hardships in the wilderness, they were refined as men of God, and men of faith.

광야에서의 힘든 훈련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제련되었습니다.

The world cannot compete with the holy people of God who is with God.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When a Christian is holy, God is always with him.

그리스도인이 거룩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If we wish to move towards a new future, we must need the resolve to become a holy man of God.

만약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There must be an experience that definitively dispels all the past shame and mistakes.

모든 과거의 수치와 실수를 확실히 날려버리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And then, we can powerfully continue on with our lives without the burden of the shameful past.

그 후에야 우리는 그 부끄러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능력있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2. To be the people who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

After performing the circumcision,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celebrate the Passover.

할례를 행하게 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This is from section 10.  The Israelites enjoyed their victory celebration before even battle.

이 내용은 10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전투도 하기 전에 승리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that the Israelites won was not that they fought in the war.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그들이 전투에서 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They had simply joined a fight that God has already won.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So, they were going not to war but to confirm the victory and the blessing of God.

따라서 그들은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확정하러 갔던 것입니다.

The Christians’ fight was to enjoy the festivities of victory before the fight.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싸움에 앞서 승리를 경축하는 것입니다.

What is salvation?  It is to confirm the victory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as my victory.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I have won against the world”, the victory that Lord won, the salvation that the Lord bestowed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취하신 승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That is what the Passover feast celebrates.

그것이 유월절 만찬이 경축하는 바입니다.

Who can conquer the world? Who can rescue the world?

누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It is those who remember the thrill of the salvation, and whose hearts heat up merely at the word Jesus.

구원의 스릴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저 예수라는 말만 듣고도 그 마음이 뛰는 사람들입니다.

We who live with the gratitude of having become the children of God will be the conquerors of the world.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 속에서 사는 우리가 세상의 정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Let us remember. Without the gratitude of salvation, there exists no ability to conquer, no glory of victory.

기억하십시다. 구원에 대한 감사 없이는 정복의 능력도 승리의 영광도 없습니다.

To worship God is watching God who gives us victory. It is to respect God Almighty.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At this time, God too, looks at us. And he will grant us peace.

그러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Please look to God. Do not view only the problems.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저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지 마십시다.

We must look with belief in His blessings and peace and wisdom and gifts.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강, 지혜와 은사들에 대한 믿음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A cleaner cleans the windows of the building tens of stories high hanging on by a line.

어느 청소하는 사람이 줄 하나에 매달려 십층 건물의 창문을 닦고 있습니다.

He has no fear and even hums a tune.

그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노래도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We ask him if he is scared or afraid and he says no.

무섭지 않냐고 그에게 물으니 무섭지 않다고 말합니다.

What is the secret? It is to “absolutely not look down”.  He only looks up while working.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라면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일할 때 오직 위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Let us also go forward by looking up. Then we can defeat fear.

우리도 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Please believe that a strong rope is holding me tight.

강한 로프가 나를 든든히 붙잡아주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When we look up at God and worship Him, God gives us victory.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3. You will win when you obey God.**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The Israelites performed circumcision and celebrated the Passover feast.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경축했습니다.

The commander Joshua now revels in great anxiety. He knows the importance of the first war.

사령관 여호수아는 이제 엄청난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첫 번째 전투의 중요성을 그는 잘 압니다.

They must win. We can imagine the pressure on the general’s spirit.

그들은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령관의 정신적 압박감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Now when Joshua was near Jericho, he looked up and saw a man standing in front of him with a drawn sword in his hand.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Joshua went up to him and asked,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Neither,” he replied, “but as commander of the army of God I have now come.”

“둘 다 아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온 것이다”

Then Joshua fell facedown to the ground in reverence…

그러자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After meeting God, all of Joshua’s worries disappeared in an instant.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수아의 모든 근심들은 한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He thinks. This work was always the work of God. It is not my worry or concern.

그는 생각합니다. 이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내가 근심할 일이 아니다.

God made all things.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Then, he hears the voice of God.

그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Joshua knew well what “Take off your sandals” meant.

여호수아는 “네 신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Every free man wore shoes at the time. Only slaves took off their shoes.

그 당시 모든 자유인은 신을 신었습니다. 오직 노예들만이 신을 벗고 있었습니다.

“I am not a commander. God is the true commander.

“나는 사령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사령관이십니다.”

It means that I must entrust all the goals in my life, all the means of how I live my life, and all operations to God, His hands.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목표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수단들과 방식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I must obey his will. I am the military, and the military is nothing without submission and obedience.”

나는 그분의 의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군사입니다. 복종과 순종이 없다면 그는 실상 군사가 아닙니다.

Joshua was well aware of this fact.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Now, Joshua is no longer the commander of the army but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Joshua now becomes bold.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군대의 사령관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He need only follow the war that God fights.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God should also be the commander in the ministry, in the business and in the home.

우리의 사역지, 사업장,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사령관이 되셔야 합니다.

There was a time I fasted while engaging in the ministry. God gave me two responses.

제가 어떤 사역에 참여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First, “My coming is close.” This was my establishment of Adventism.

첫째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를 통해 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Second, was the voice of God that said “I am in charge of the ministry. Not you.”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아니라 내가 그 사역을 주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Thereafter, I was able to always be strong and have good courage, and be in peace.

그 이후 저는 언제나 강할 수 있었고, 용기와 평안 속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There is one thing clear at this point.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The Israelites would have been defeated if they had fought before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had come to them.

만약 이스라엘이 주님의 군대 대장이 그들에게 오기 전에 싸웠었다면 분명 그들은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Even if they had won, the future was not guaranteed.

설령 이겼더라도, 그들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A spiritual battle is God’s war. A life of faith in the church is God’s war.

영적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The great winners and conquerors of the world are the people that take off their shoes before God.

위대한 승자들, 그리고 세상의 정복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발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They are the people who know how to give up their rights.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Time, money, reputation, environment, self-esteem ... God uses those who know how to take off their shoes.

시간, 돈, 평판, 환경, 자존감 등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을 벗을 줄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If there were another name for a minister of God, it would be a disclaimer.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The church is God's army which conquers the world with the Gospel.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We have authority and power to win the spiritual war.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Let us remember.  We must be the life of victory.  Please pray as such.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Lord, let me be the Lord's holy people, a man of faith, and a man of obedience.

주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When we become such a person, we will become the person who is victorious.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